

유휴간호사 채용 중소병원 훈련비 지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시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위해 중소병원 간호사 취업 활성화 지원

중소병원에서 유휴간호사를 채용한 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의뢰해 현장실무훈련을 시킬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8월 16일부터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시작에 앞서 사업설명회를 8월 9일 서울 중무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중소병원 150여곳의 간호부서장 및 인사담당자 23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은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산시키고, 간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직접 유휴간호사를 발굴해 교육시키고 취업을 지원해온 기존 방식과 함께 병원에서 먼저 유휴간호사를 채용한 후 센터에 의뢰해 현장실무훈련을 시키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훈련을 마친 후 훈련비를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2·4주 과정 3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4주(20일) 과정의 경우 훈련비로 1인 100만원이 지급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예정) 병원 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실기 및 실습강사 표준화 교육'과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력단절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유휴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참조.

이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간호사들을 병원 현장에 복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간호대학 정원을 많이 늘렸지만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과 수도권 출몰 현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간호사들의 이직을 최소화하고,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채용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병원의 핵심인력인 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채용과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이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 모두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달려나가자"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간호인력 취업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중소병원 150여곳에서 간호부서장 및 인사담당자 230여명이 참석했다.

육사업 소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동민 주무관이 발표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유휴간호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는 병원의 성과사례가 소개돼 호응을 얻었다.

서울성심병원 김영에 간호부장은 "초기에는 기존 간호사들이 유휴간호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서로 호흡이 맞고 안정되더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1명이 유휴간호사 2명을 전담해 프리센터 역할을 하면서 간호업무 수행할 때 꼼꼼히 체크하고 지켜봐줬다"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휴간호사들이 직장생활과 조직문화에 대해 잃어버린 감을 되찾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지주 충분히 대화하면

서 소통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다.

김영에 간호부장은 "유휴간호사들은 연륜이 있는 만큼 연세가 많은 환자와 라포를 잘 형성하기 때문에 병동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든다"면서 "나이 어린 간호사들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며,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정구성심병원 이규민 간호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은 간호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교육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꾸릴 때 경력과 신입, 원내 이동과 신규 채용의 조화를 잘 이룬 덕분에 간호사들이 모두 잘 적응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빼놓지 않고 이수시켰다"고 밝혔다.

간호사신문 홈페이지 새 단장

모바일 신문 구축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신문 'PDF 지면보기' 기능 강화 종이신문 펼친 것처럼 기사 볼 수 있어

간호사신문 홈페이지(www.nursenews.co.kr)가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새 단장된 모습을 선보였다. 모바일 홈페이지(m.nursenews.co.kr)도 새로 구축해 오픈했다.

새 홈페이지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디자인했으며, 블루와 그레이 컬러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핫핑크로 포인트를 줬다.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세련된 이미지,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또한 독자들이 보다 편하게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본문 글씨 크기를 키우고 행간을 넓혔으며, 여백을 충분히 살렸다. 기사에 들어가는 사진 크기를 키웠고, 기사목록에 사진 이미지를 노출시켜 시선을 집중시켰다.

키워드를 입력해 원하는 기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창 기능도 업그레이드했다. 기사를 SNS에 공유할 수 있는 기

능도 추가했다. 이번 리뉴얼 작업의 핵심 포인트는 '신문 지면보기'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매주 발행되는 간호사신문 종이신문의 형태 그대로 PDF파일로 볼 수 있는 '신문 지면보기'를 메인화면 중앙에 배치했다. 각 지면 파일을 클릭하면 마치 종이신문을 펼쳐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읽을 수 있다.

독자와의 소통을 중시한 것도 특징이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인터뷰한 '괴물' 코너, '취업 캠페인'을 메인화면 중앙에 두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쓴 글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독자페이지'도 눈에 띄게 배치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간호사신문을 볼 수 있도록 개발했다. 스마트기기의 디스플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화면

레이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돼 어떤 종류의 스마트기기에서도 최적의 상태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첫 화면에 배치된 기사목록을 클릭하면 종이신문에 실린 것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신문 지면보기' 기능 역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이어 "유휴간호사를 채용한 경우 원하는 근무형태를 보장해주고 있다"면서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과 복지혜택이 보장되는 '단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간호사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구로성심병원 조성현 간호부장은 "다양한 근무제 프로젝트를 통해 주간전담제, 단시간근무제, 선택근무제, 야간전담제 등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때는 명확한 직무지침이 있어야 하

며, 처우와 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간호사들의 임금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밤번역제 등 복지를 강화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www.RNjob.or.kr)는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2015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는 개정된 의료법

제60조의3에 명시돼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유휴간호사력의 취업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중앙센터와 함께 △서울·강원권역센터 △인천·경기권역센터 △대전·충북·충남권역센터 △대구·경북권역센터 △부산·울산·경남권역센터 △광주·전북·전남·제주권역센터 등 6개 권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1. 모집인원 및 자격

구분	모집인원	응시자격
신규간호사	000명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3. 지원서 교부

병원 홈페이지(www.dumc.or.kr) 일산병원 채용공고란

4. 접수장소 및 기간

가. 접수장소 : 103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운영지원팀(4층)
나. 접수기간 : 2016. 9. 6(화) ~ 9. 12(월)
다. 접수방법 : 인터넷에 등록된 서류 출력 후 아래의 제출서류 동봉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라. 접수문의 : 운영지원팀 031-961-9303

5. 제출서류

- 가.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나. 최종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석차기제 必)
- 다.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성에 한함)
- 라. 지도교수 추천서
- 마. 관련 자격증(보건, 어학, 컴퓨터 등) 제출시 우대

6. 기타

- 가. 수험표는 면접 당일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나 마감기간 이후 도착본은 접수불가 및 반송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일정에 대하여 개별통보를 해드립니다.
- 라. 전형결과와 개인별 E-mail 또는 휴대폰으로 통보되오니, 지원서 작성시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증명서류 첨부 필수)
- 바. 자세한 사항은 병원 홈페이지 www.dumc.or.kr 채용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 희망찬 날개짓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규간호사 공개채용

환우를 향한 따뜻한 마음, 아픔을 함께하는 나눔,
허물을 벗고 미래를 향하는 희망찬 날개짓.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함께 시작하십시오!

